

# 말씀의 샘

## 내일을 기도로 준비하라 <사도행전 10:1~9>

우리는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들어왔습니다. 이외에도 기도의 명언은 참 많습니다. 한번 살펴 볼까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 스피전 /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이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 기도는 천국 발전소의 스위치를 누른 것이다- 무명의 그리스도인 /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 이 엠 바운즈 / 기도는 영혼의 피이다. - 조지 허버트 /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자물쇠이다. - 그레이엄.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점은 첫째,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바탕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응답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라 해도 기도를 안하는 신자들이 제일 영적으로 불안합니다. 약한 영은 그를 쉽게 시험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한 제자들의 기도와 그 이후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 첫째, 기도는 내일을 위한 씨뿌림입니다.

기도는 씨와 같습니다. 눈물과 간절함의 기도는 생명력 넘치는 씨뿌림 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내일의 추수가 약속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모든 이야기들은 가만히 보면,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의 기도를 올렸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 기도하나? 뭘 그렇게 할 말이 많냐?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기도와 그 응답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기도라는 씨는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뿌리고 위로부터(하늘로부터) 모든 좋은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심은 사람에게는 내일이 확실히 있습니다. 심으면서 씨를 아깝다고 하거나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가 마귀가 가장 방해합니다. 씨 뿌릴 때입니다. 씨 뿌리는 그 사람만 막으면 되는데, 씨를 잔뜩 뿌려놓으면 그때부터는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그걸 다 뽑아 없애야 하니 보통 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씨가 많이 뿌려져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응답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 마귀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러 오는 시간을 방해하며, 기도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악착같이 막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영적싸움이 치열합니다. 내일을 위해 하늘에 씨 뿌리는 생산적인 일을 절대로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 둘째, 기도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자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또 그의 기도가 쌓인 만큼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갈아놓는 아스팔트와 같습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은 형통하게 진행됩니다. 기도만큼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사무엘이 그 시대에 필요했고 사무엘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에게 있어 브닌나는 한나의 기도분량을 더욱 채우는 가족 폐달 역할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어쩌면 기도의 분량을 높이는 채찍이요 에너지 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간절하고 더 많은 기도를 쌓기 원하십니다.

그 시대에 예비된 사무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만큼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등장하는 창세기 22장이 있기 전, 창세기 21장 마지막에 잠깐 지나가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21: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후부터 이삭이 자라기까지 한 일은 여러 날을 지내며 했던 많은 분량의 기도였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부르며 부활 신앙을 준비하였고, 이삭을 능히 바칠 믿음의 힘을 기도로써 준비하며 쌓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루 아침에 이삭을 바치는 위대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의 분량이 그 일을 하도록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한 사건이었던 마가다락방 성령강림은 우리가 알다시피 열흘간의 '천허 기도'에 힘입어 일어난 후회 나타났습니다. 열흘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강도 높은 기도로 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도의 분량을 충실하게 쌓아갔던 것입니다.

항상 기도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특별히 기도의 부담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동을 통해 기도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감동에 순종하시고 기도를 쌓는 지혜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 하루는 제 구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4 고넬료가 주복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읍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의 기도가 쌓여가던 어느 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가정집회 강사로 청하라는 명령을 갑자기 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충실하 쌓여있었던지, 마가다락방 성령의 강림이 설교 도중에 이뤄졌던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강림으로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심령에는 그냥 은혜가 풍성하게 부여됩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전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배 전 준비기도가 고넬료에게 내린 큰 은혜를 경험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일을 열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로써 심령을 준비하며, 기도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신령한 두란노교회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 2016. 7. 3 주일 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7. 10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마태복음 16:16~20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